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눈을 뜬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뵈기 전에는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셔도
눈 어두워 보지 못 했네.
칠후 같은 어둠이
온 몸을 뒤덮고 있던 그 때는
괴로움과 갈등, 슬픔뿐이었네.

어느 날 주님이 내 손을 이끌어
피 흘린 십자가 부둥켜안게 하셨을 때
나 처음 눈을 떠 주님 뵈었고
이제는 주님이 멀리 숨어 계셔도
내 눈 바로 앞에서 주님을 뵈옵네.
눈부신 주님의 그 얼굴을(계 1:16).

아, 이 기쁨 아무리 찬란하여도
장차 올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
나 주 얼굴 친히 뵈옵고
해도 등불도 쓸데없는 천국에서
주 얼굴 빛 삼아 영원히 살 것이라(계 22:4-5).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 22:20)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맑아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문득 문득 여러분이 간절히 그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가을 하늘처럼 청결해져서 주님을 늘 뵈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친히 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힘들고 고된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1)

1) '시편'이라는 이름의 기원

우리가 '시편'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명칭은 영어로는 'psalm'인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성경의 헬라어 명칭인 '프살모이'(Psalmoi,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를 음역한 것이다. 히브리 원문의 명칭은 '시(詩)들의 책'이란 뜻이며,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개역성경의 '시편'이란 명칭도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이다.

2) 저자로 분류해 본 시편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00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나머지는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저자별로 시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윗의 시는 3-9, 11-32, 34-41, 51-65, 68-70, 86, 101, 103, 108-110, 122, 124, 131, 133, 138-145 등 모두 73편이다. (2) 고라 자손의 시는 42, 44-49, 84-85, 87-88 등 모두 11편이다. (3) 아삽의 시는 50, 73-83 등 모두 12편이다. (4) 솔로몬의 시는 72, 127 등 모두 2편이다. (5) 예단의 시는 89편 하나이다. (6) 모세의 시 역시 90편 하나이다.

3) 시편의 구성상 분류

총 150편의 시들이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다섯 권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구분은 후대에 나누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인 분류는 되지 못한다.

제1권 : 1-41편

제2권 : 42-72편

제3권 : 73-89편

제4권 : 90-106편

제5권 : 107-150편

성경해설용 필자지문서

4) 시편의 유형상 분류

시편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 공동체의 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시, 찬양의 시, 왕의 시 등이다. (1) 신앙 공동체의 시편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기쁨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시는 성도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편은 모두 53편 정도가 되는데, 성도의 갈등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찬양의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시온의 아름다움,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율법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왕의 시편은 직접적으로는 왕에 대한 찬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내다보는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편은 모두 11편이 있다. (5) 지혜 시편들은 인간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시편으로 모두 7편 정도가 있다.

성경해설용 필자지문서

(성경해설용 필자지문서)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시편 3편과 동일한 것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며 지은 시입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편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경고(1-5절)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6-8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나 영적으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세상 기쁨 중에도 풍성하게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는 원수가 급박히 추격하여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쾌락에서, 지식적인 추구를 통해,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비참함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참 기쁨과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소욕을 좇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공격에 떨어져 넘어지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본 시에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응징으로 보복해 주실 것과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호소입니다. 다윗은 본 시를 통하여 자신의 아침 기도 시간에 응답을 바라고 있는데(1-3절),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악인은 그와 반대로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4-7절).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으며(8-10절) 더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11-1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경배하는 자만이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만한 자들에게 진노를 발하실 것이며 나아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이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 매일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올라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a)

기도 제목 / ① 환란 중에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관하여 지은 시편으로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자신의 영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따라서 그 주된 내용은 다윗 자신이 죄를 슬퍼하며 고백하는(1-7절) 회개가 시의 전체를 흐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8-10절). 본 시편은 심한 고통 중에서 또는 어떤 병고 중에서 기도로 부르짖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듯 하는 고통 중에서 기도한 한밤중의 기도라고 보아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비참한 환경에 빠지고 고통을 맛보면서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이 일찍이 밋세바와 간음한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합니다(1-2절). 그의 정신적 고통이 육체의 조직에까지 미치어 수척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통으로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읊는다. 다윗의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쇠해졌을 뿐 아니라, 다윗의 몸은 비애로 인하여 늙었습니다(6-7절). 결국 다윗은 이러한 고통이 오래 계속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는 그렇듯 비통의 밑창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여 확신을 얻자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시 51:2)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에서 다윗은 개인적인 탄식(1-2절)과 자신의 무죄를 저주의 형식을 빌어 맹세(3-5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요청(6-10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악인의 운명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본 시를 통하여 온 세상에 대해서 의롭게 행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절제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을 막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결국에 멸망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심판 받을 자로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종말에 가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혹은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에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이는 나의 힘이시라”(합 3:19a)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품을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본 시는 전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1-2절)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을 으뜸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부분(3-9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의 왜소함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부상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과 권력과 물질과 인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결국은 허망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들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제함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죄 아래에서 은혜의 보좌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 자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전심으로 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로 노래한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지난날 원수들의 횡포와 위기로부터의 구원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주어질 구원에도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1-3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4-10절), 구원에 대한 간구(11-14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15-18절), 악인의 심판 간구(19-20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시에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결국 본시는 하나님이 인생보다 훨씬 강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백성들에게 권고하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의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하며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성에 인간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12)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표현상 시편 9편과 유사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전체를 흐르는 반면에 본 시는 주로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본 시는 개인적인 비탄시로서 전반부(1-11절)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듯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긴박한 탄식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적, 특히 사탄의 악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혀 밑에 있는 해독(7절), 잠복해 있는 악당(8절), 숲속의 사자, 아무 의심도 갖지 않는 가련한 것에 대하여 올가미(그물)를 놓는 사냥꾼(9절)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은 보좌를 물러나시거나 한 듯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후반부(12-18절)에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 받는(신분 낮은)자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예비하신 때, 그 응답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고전 2:9). 의인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영원한 복이 아니란 사실과 아울러 이 땅에서의 꺾박 또한 영원한 꺾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복들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악인이 현실 속에서 의인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으나 종말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모순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돌아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감찰하시며 돌아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사울이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쩔 수 없이 제기되는 실망과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드러나 있고(1-3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신앙적 해답(4-7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도망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4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을 감찰하셔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셔서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고전 10:13).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열악해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히 12:2).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어느 곳으로든 도망치고 싶은 두렵고 힘든 환경과 고난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상실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히 10:38).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험이나 도전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약 4:6).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악인들로 가득 찬 부패한 세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전반부(1-4절)와 악인이 도처에 횡행함을 지적하면서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후반부(5-8절)로 구성된 비탄시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분명 어렵고도 고독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거짓말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교만한 입술을 끊으실 것입니다(3절). 사람들은 거짓말이 상대적으로 해롭지 않고 때로는 유익하기까지 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수단으로 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과 아침과 사기와 교만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계 21:8).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고후 11:23-27).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결하고 신실하셨습니다(6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좀더 나은 복과 호의를 얻으려고 진리를 버리고 속임수를 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불변하며 순결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십시오(요 17:19).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곤경의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본 장은 전체적으로 세 쌍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절망적인 탄식(1-2절), 구원에 대한 간구와 호소(3-4절),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확신과 신뢰의 찬양(5-6절)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1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누구나 끝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원수의 박해 속에서 처절한 고통과 답답함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만을 보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히 5:8).

결국 다윗은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 드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시 118:5).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4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이 패배하고 사망하게 될 경우, 악의 편에 섰던 자들에 의해서 다윗 자신이 의뢰하던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결한 믿음의 통로입니다(고후 7:1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결한 믿음의 필수 과정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이 올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를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타락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심판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시온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십니다(2-3, 7절). 하지만 이방인은 물론이고 선민 중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롬 3:10-12).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에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함께 계시며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5-6절). 의인이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합 2:4). 가난한 자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꾀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지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며,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할 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기보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배반하는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시편입니다. 1절의 '주의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의식이 아니라 진실하고 공의로운 마음과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성산과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백성들 사이에 살고 있으며, 세상의 표준과 도덕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표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우리는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같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84:4).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언제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제거하여 주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기록한 시편인데, 전반부는 신앙의 확신을(1-4절), 후반부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5-11절)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괴로움이 더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되 겸손과 인내로(행 20:19), 열심으로(롬 12:11)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심장이 밤마다 자신을 교훈한다고 고백합니다(7절).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심장이 자신의 힘으로 인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게 하심으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다윗의 심장을 뛰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마 1:23).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18-20).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요 14:16).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며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자신의 건백을 주장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중상모략으로 자신을 울무에 몰아넣고 있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구원의 요청(1-12절)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해 누리는 영혼의 평안함(13-15절)이 본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잠시나마 득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를 위하여 핍박당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마 5:11). 도리어 고통 받는 그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악인을 향한 저주의 입술을 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마 26:39).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여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도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의지하며,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 동안의 역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8).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떤 핍박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니는 처지일 때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도피자의 생활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 만장했던 일생을 회고하며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시편에서 다윗은 왕국의 세우심과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29-43절).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승리의 기쁨에 자만하지 않고 만인 앞에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며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44-48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다고 하여 성도가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 담대하게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자신의 의를 따라 상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20절). 이는 다윗의 의가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는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사 구원하신 것(19절)을 가리킵니다. 특권과 축복만을 누리려는 안이한 성도는 결코 시편 기자처럼 벅찬 감격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25, 26절)가 되어 여호와와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절)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은 하나님의 일반계시의 도구인 창조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7-14절은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 및 그것이 인생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해 노래하는 지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부분은 서로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과 계명과 규례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실로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능력과 위대한 섭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전적인 순종이 지극히 마땅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음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주의 뜻을 좇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히 4:12,13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진정한 살 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 백성들과 제사장이 승전을 간구했던 기도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이는 결국 어떠한 종류의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부른 노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출정하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본 시는 일차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확대 해석하면 주의 백성들이 악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의의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를 기원하는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시는 다윗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승리와 보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간구(1-5절), 다윗 자신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주실 것을 확신함(6-8절),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금 왕의 승리를 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서 우리는 모든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여호와 중심 신앙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즉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험악한 고난을 당할 지라도 ‘야곱의 하나님’ 곧, 비천한 인생을 끝까지 잊지 않고 돌아보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롬 8:37). 실로 우리에게 이같은 신앙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눈앞에 닥친 고난들을 담대히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용기를 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부른 시로 추정되는 개선시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데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 찬양과(1-7절), 미래에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한 백성들의 노래(8-12절), 미래에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승리를 베푸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는 송영시입니다(13절).

이러한 본 시는 출전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는 시편 20편의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승리에 대한 감사와 환희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분(8-12절)에서도 간절함이나 비장함보다는 선취적 신앙에 의해 미래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이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힘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승리에 대한 확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원한 의의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본 시와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7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 여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전쟁에서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핍박과 온갖 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겪었던 자신의 절망과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개인의 고통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다가 급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노래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러한 본 시의 전반부(1-21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후반부(22-31절)는 그의 부활과 승천 및 재림으로 온 우주 가운데 펼치게 될 영광스러운 통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억울한 고난에 대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단지 절망 속에서 좌절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자이며 그러한 자만이 여호와와의 예비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시 37:24),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는 것이 참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도 홍해와 같은 난관이 있다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응답이 더딜지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시는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간의 절대적 신뢰와 보호의 관계 및 이 관계 안에서 성도가 얻는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양 떼의 복된 모습에 비유하여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푸른 초장', 'שלמחן 물가' 등의 아름다운 전원의 이미지(2,3절)와 두렵고 어두운 산악의 이미지(4절)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1-4절) 및 영원한 종말론적 축복(5,6절)에 대해 진한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나뉘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생의 육적이고 현세적인 만족과 안정을 공급하는 분으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푸른 초장과 שלמחן 물가를 제공하셔서 영적인 안위와 만족,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원수들 앞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진이 넘치는 축복을, 즉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전인격적인 것이며 또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관계를 맺어 주신 사실은 실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깊이 감격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므로 다윗처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오벵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계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법계를 다윗성(시온산)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1,2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익숙한 사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곳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지만 특히 법계를 가지고 갈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산에 올라 예배자를 찾고 그곳에서 예배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3-6절). 곧 손이 깨끗한 자이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진실한 자이며 말에 거짓이 없어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얻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7-10절). 그 축복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배와 찬송을 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원수들의 꾀박에 의해 고난에 빠진 시인의 신앙고백과 호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원수들에 의해 고난 받는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1-3절). 이것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주를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인을 무고히 속이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는 다윗은 주의 길, 즉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인도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고 주의 선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4-7절). 죄는 반드시 죄책감을 유발하기에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 했을 때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음으로써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가 여호와의 선과 정직과 진리에 근거한 것임을 찬양합니다(8-14절). 그리고 다시 한번 원수들로 인하여 고난 받는 자기의 상황을 아뢰며 여호와와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15-22절).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운 심령의 간구를 즐겨 들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인내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이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도록 단련하십니다(히 5:14). 성숙한 믿음은 연단을 통하여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피시고 시험하사...단련하시느” (2절) 사랑으로 나타나 신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을 만날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늘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연약한 자신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들은 흔히 죄를 부인하거나 은폐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즉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슴깊이 깨달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의인의 삶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히 12:2 참조).

“...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시 130:7)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식지 않는 신앙의 열정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본 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에 호소하면서, 장래에도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중보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 승리는 더욱 확실합니다 (엡 2:6).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는 참 능력이 됩니다. 견고하고도 영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를 …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기도 제목 / 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위험한 순간,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1-5절) 기도하는 다윗은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6-9절)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의 피난처요 반석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은 견고합니다(롬 15:8).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시 146:5).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고백은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욱 의지한 사람, 다윗의 결국은 끝없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적전쟁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과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엡 6:10). 여러분의 삶 속에는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란 날의 피난처시여...”(렘 16:19)

기도 제목 / ① 환란과 역경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본 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고후 4:15). 아울러 단순히 자연적인 것들에 관해서만 말하지 않고 특별히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자연과 인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마치 그림 그리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장엄하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풍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 곧 주의 말씀도 권능이 있어서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5-7절). 폭풍의 위력이 멀리 가데스 광야에까지 미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미칩니다(히 4:12). 그러므로 담대하게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며”(1절),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2절), “여호와께 경배”(2절)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경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존귀하신 것만큼 우리도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골 3:16).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빌 4:20)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주신 것과 역경 중에도 여전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2절), 불순종한 자신을 향하여 잠시 진노하시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5절),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6-10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이처럼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십니까?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진토' (9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진실하게 낮추시는지요? 모름지기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교만함을 쳐서 복종시키며(고전 4:13)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벧전 5:5).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등등의 고백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알고 교만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줍니다(삼하 24장). 이렇듯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인정과 뜨거운 감사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12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시 107:7)

기도 제목 / ① 항상 예수의 도우심을 믿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② 농여 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고백과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절박함을 볼 때,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과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과 아울러 단순히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항상 최상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산성이 되어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구원의 큰 은혜를 확실히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계5:13).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하셨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끝없는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위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마침내 승리하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림받은 것과 같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서도 넉넉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21-22절).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유 1:20)

기도 제목 / ① 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큰 믿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② 전 교회와 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생은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롬 3:9).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은 알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롬 3:16-17). 우리는 절망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운 밤 같은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 장에서 회개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밖에는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은총은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구원의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사죄의 은총은 오직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5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도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종일 신음”하게 되고 죄를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뼈가 쇠하며 그 진액이 마름과 같은 고통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3-4절). 그러므로 구속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부름꿊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6-7절).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

기도 제목 / 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은 창조주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은 “의인들”(1절), “정직한 자들”(1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18절)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행하신 놀라운 사역과 그 크신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고전 6:20).

진정한 찬양은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이와 넓이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찬양이 곧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본분입니다(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는 일생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나아가 공교한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격하여 늘 찬송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 아멘 아멘”(시 72:19)

기도 제목 /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자기 점검

♣찬송/ 193장(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본문/ 고린도전서 11:28

²⁷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²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²⁹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참고)

- 시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 시 139:23,24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28절-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준비는 무엇입니까?
- 2) 27,29절- '자기를 살피는 일' 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시 66:18-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4) 잠 28:13-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5) 시 139:23,24-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자기 점검」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친구들을 살피보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이 요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점검해 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답)

2) '삶을 살피보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요일 2:15a)라는 말씀에 비추어 요즈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답)

3) '생각을 살펴보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라는 말씀 앞에서, 요즈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문제가 땅엿 것인지 위엿 것인지 점검해 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답)

4) '마음 속 동기들을 살펴보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라는 말씀 앞에서, 요즈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마음 속 동기들을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답)

5) '자기 점검'이라는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번 성찬식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서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자신의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을 살핌으로써 승리를 얻고, 다가오는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모든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간구 /

3.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2 과.....

심판의 날

♣찬송/ 323장(주께로 한 걸음씩) ♣본문/ 로마서 14장 7-12절

⁷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⁹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¹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¹¹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¹²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로마서 14장 7-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1) 7,8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살아도 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를 위하여 죽는 것”

2)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가 되는 것”

3) 10절- 우리가 다 서게 될 심판대는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의 심판대

4) 11절-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심판의 날」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왜 '심판의 날'을 자주 기억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

답)

2)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그 날'의 단락을 읽고...

질문) 심판의 날에는 상과 형벌이 결정되어 실행될 것입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서로 연결해 보십시오.

답)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 ·

·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영벌을 받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 ·

·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상으로 받음

3) '심판대 앞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씩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답)

4)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종 심판'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이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고전 4:5, 전 12:14)

답)

5)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종 심판'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생각을 준비하여 말해 보십시오.

답)

6) 「심판의 날」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오늘 설교를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나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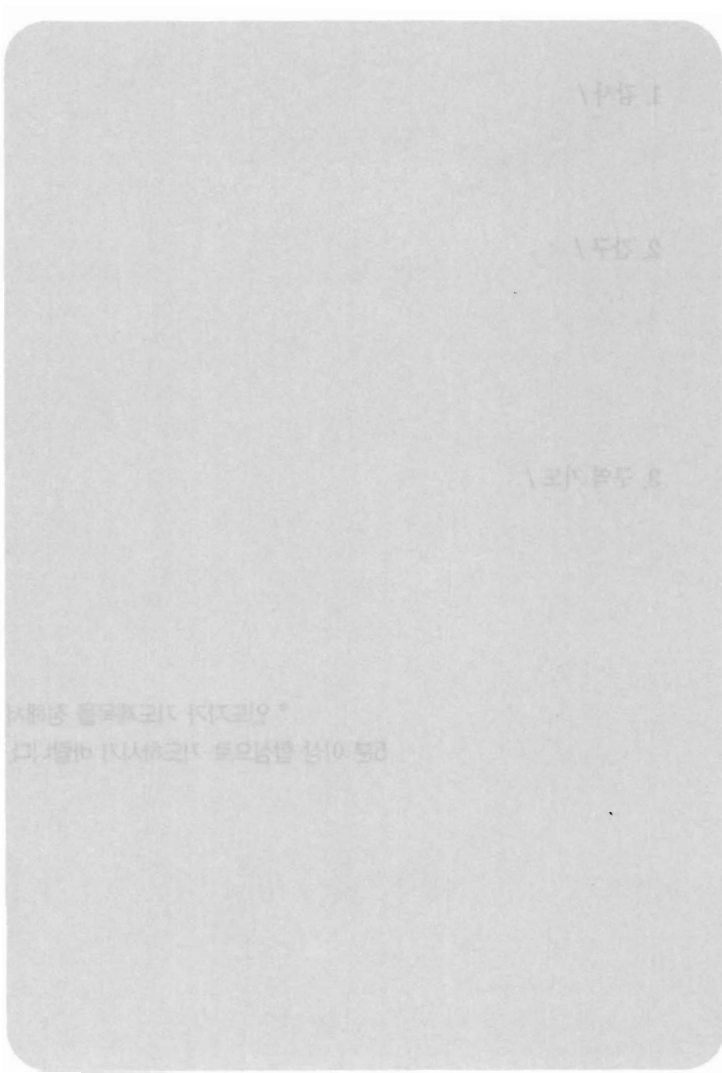
1. 감사 /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15. 2. 16. 2. 10 본문: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제 3 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 찬송/ 71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본문/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참고)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
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
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후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
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출애굽기 4장 2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1) 출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배경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출 4:17-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3) 고전 1:27-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4) 고후 12:9-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고후 12:10- 다음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
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작은 것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다윗과 기드온의 승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한 후 정리해 보십
시오.

답)

2)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강한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러한 체험을 한 가지씩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답)

3) '우리의 약한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나아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어린 여자 하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약함이 선교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답)

4) '우리의 약한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헌금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헌금 생활과 헌신의 삶을 점검해 보고 회개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답)

-
- 5)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가 작고 약한 것을 기쁨으로 바칠 때 주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생각해 보고,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답)

- 6)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닫거나 도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실 여러분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지금 나아가십시오.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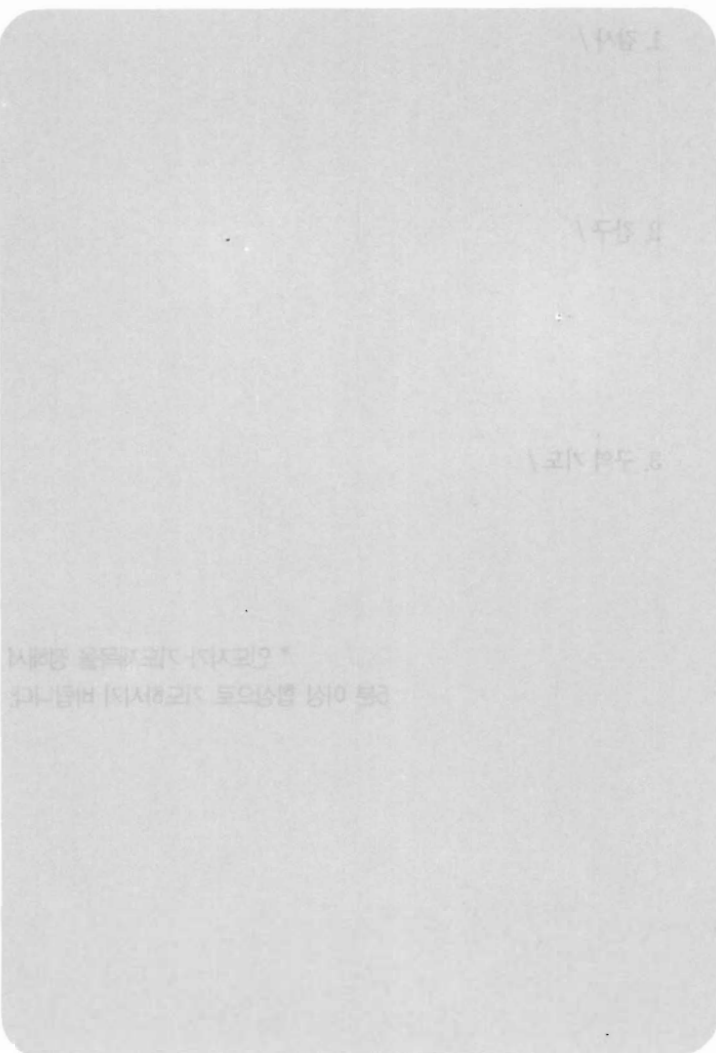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4 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 찬송/ 344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에도) ♣ 본문/ 시편 62장 4-8절

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⁵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⁶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⁷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⁸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시편 62장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4절-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환경을 추측해 보십시오.

2) 5절-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까?

3) 6,7절- 환난 가운데 처한 신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 8절- 환난 가운데 처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 8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어도'의 단락을 읽고...

질문)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을 몇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답)

2) '죄의 유혹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도'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죄의 유혹으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는 실패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3) '고난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괴롭게 하여도'의 단락을 읽고...

질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더 튼튼해진 경험
이 있다면, 그 때의 체험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답)

4)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를 뒤흔들어도'의 단락을 읽고...

질문) 행 21장 13절 전후를 읽고서,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부터 우
리가 배워할 교훈을 찾아보고 여러분이 느낀 점을 말해 보십시오.

답)

5)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닫거나 도
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는 기도

1. 감사 /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남성구역공과 설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⁸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 62:4-8)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네 가지 영역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1절).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마귀와 귀신입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4절).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자신의 친구들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8절).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12절).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무겁게 짓누르고 고난이 극심할 때에도 거기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그럼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

운 보화인지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6절).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어도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킬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정욕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다른 가능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려 하고 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끈덕진지 쉬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사단의 소원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면, 여러분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약 4:7 참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시 21:7).

죄의 유혹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도

죄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손상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항

상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듭니다(사 59:2). 죄는 은밀하게 다가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1,22).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뿌리를 뽑아 내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성장한 죄라도 모두 말끔히 씻어 없애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만들어 놓은 끔찍한 파괴를 고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괴롭게 하여도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촉구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3:3).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살전 3:7,8). 신자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여러분의 친구들,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가정 안에서 항상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대충 넘어

가주실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역사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을 때, 성령께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만졌던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바울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b). 심지어는 바울의 가장 친한 동료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바울을 뜯어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좁은 길, 곧 고난의 길로 걸으려 할 때, 그들은 그런 지식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반대합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벧 후 1:10).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4년 9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최성규(1-7일), 이재영(8-14일), 조규호(15-22일),
이성진(23-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